

# 나주시,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마켓 연다

### 내일부터 이틀간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농산물 소비시장 활성화·먹거리 신뢰 확보



나주시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지역 농산물 오픈 마켓 행사를 연다. 나주시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 간 10시부터 16시까지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서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드라이브 마켓'을 운영

한다고 27일 밝혔다.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는 차에 탑승한 채로 쇼핑할 수 있는 상점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개념을 접목시킨 선별진료소를 시행하면서 K-방역으로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드라이브 마켓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농산물 소비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농가의 만남을

통한 먹거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획됐다. 지역 대표 특산물인 나주 추황배(3kg, 1만1000원)를 비롯해 사인머스켓(2kg, 3만원), 황토고구마(3kg, 8000원), 맛간장+배초장 세트(1만8000원), 배구용과자(1만원) 등 5가지 품목을 시중가보다 최대 25%할인 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구매 방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로 상품을 선택하면 직원들이 차량으로 직접 실

어준다. 마켓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품목당 2개까지 구매 가능하다. 시는 구매자 차량에게 시식도사라, 3만원 이상 구매 시 찰보리쌀(1kg)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K-방역의 모범사례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접목시켜 농산물 소비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이번 마켓행사를 기획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획취재본부

## 장성군, '뚝' 소리는 평생학습 강좌 '시동'

장성군이 개강한 평생학습 강좌가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군민들로부터 고른 관심을 얻고 있다. 군은 전라남도 주관 '2020년도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강좌는 ▲도에 체험을 통한 다육식물 키우기 ▲희망을 품은 베이커리 ▲문해교사 양성과정의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에체험을 통한 다육식물 키우기'에서는 도예와 다육식물 기르기를 함께 배운다. 직접 빚은 자기에 다육식물을 길러, 교육을 마친 뒤에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 매주 월·수요일 주2회 씩, 황룡면 행복학습센터 주관으로 조치도에체험장에서 진행 중이다.

'희망을 품은 베이커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과·제빵 교육과정이다. 단팻빵, 샌드위치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교육이 펼쳐진다. 장성교육지원청 특별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리고 있으며, 정원은 총 10명이다.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열릴 예정인 '문해교사 양성과정'은 주3회 씩, 총 8회에 걸쳐 열린다. 문해교사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강사다. 3급 과정이며, 문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수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열어, 군민에게 유익하고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본부



## 화순군, '한땀 한땀 피어나는 힐링' 쉼트 중급반 교육 마쳐

### 지난 7월29일 개강해 총 12회 진행...23명 수료

화순군은 농촌생활문화 쉼트 중급반 교육을 마치고 지난 23일 수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수료식은 수강생들의 교육 소감, 강사의 작품 평가, 수료증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열렸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29일 개강해 10월 23일까지 총 12회 진행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이론 교

육은 동영상 제작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다. 실습교육 역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1:1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23명이 수료했다. 교육 주제는 꽃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로 수강생들은 꽃길 조끼, 배낭, 손가방 3개 작품을 완성했다. 수강생 박광숙(화순읍) 씨는 "바느질을 좋아해서 신청했는데 교육 자체가

저에게 힐링이었다"며 "수준 높은 쉼트 기법과 응용법을 익혀 주변 지인에게 소품을 만들어 선물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고 전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에서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구례인 어울림 아트 가을 전시

구례에서 활동하는 5명의 작가들이 모인 '구례인 어울림 아트'가 10월 29일부터 '빛고, 그리고~ 수놓다!' 전시회를 개최 한다. 11월 11일까지 구례경찰서 로터

리 옛 지리산한의원 건물 1층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5인의 작가가 어우러져 빛고(도자기), 그리고(회화), 수놓은(연동자수)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 곡성군, 구원지구 762필지 경계 결정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곡성군이 최근 경제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구원지구 762필지(439,898.9㎡)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토지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해 개최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경제결정 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곡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재

조사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입면 종방지구, 곡성 대평지구, 오곡 덕산지구, 죽곡 당동지구의 경제결정을 완료한 바 있다. 앞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들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맹지 해소 등 토지활용 증대와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곡성=양해영기자

##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앙코르 해동' 개최

### 오는 31일 코로나19로 하반기 첫 프로그램 시작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문화가 있는날 프로그램 '앙코르 해동'이 오는 31일 담양군 해동문화예술촌 마당에서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한 하반기 첫 프로그램 시작인 이번 공연의 주제는 '담빛, 10월을 달다. 이정주 명창과 함께하는 고풍 음악회'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전통 국악을 비롯해 국악과 가요를 아우르는 다양한 구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매 공연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련한 담양다움 가득한 친환경 음식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 하반기를 여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며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예술인들과 담양군민들께 힘이 되는 공연예술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